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종합보고서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2017.01.24

이 보고서는 기존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종합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정미 의원 ·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 정의당 비상구(비정규노동상담창구)

종합보고서 : <블랙기업 이랜드의 실체>

목차

이랜드외식사업부 자체 체불임금 정산의 문제점 p.2

3차례 사과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법 p.6

허울좋은 '아르바이트 -> 정규직 1천명' 전환 p.12

이랜드그룹 타 계열사 문제점 p.13

이랜드본사 협력업체 대금미결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p.31

이랜드그룹 각종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 정리(표) p.36

이랜드외식사업부 자체 체불임금 정산의 문제점

1. 정산을 위한 기본자료 제공 거부

근로계약서, 출퇴근지문 등록 정보 공개 거부

- 제보자는 이랜드에 출퇴근 지문등록 정보와 근로계약서 사본 전체 요구함. 이랜드는 “금번 미지급 금과 관련된 정산은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별 실제 출. 퇴근 기록을 토대로 산정하였으므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하신 내용의 경우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
- 정의당이 이랜드 본사로부터 받은 답변 : “사용증명서는 애슐리나 자연별곡에서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에 한함“, “출퇴근 기록에 대한 법적 제공의무는 없다라는 게 이랜드 자문 법무법인의 의견임“
- 이랜드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알바 정보 3년치까지만 보유해 관련 자료가 없다며 체불임금 미정산

- 제보자가 애슐리 외식사업부 쪽에 임금지급 관련해서 문의를 했더니 3년치까지만 알바생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함

2. 구체적 체불내역에 대한 공개 거부와 정산액에 대한 의문

실제 근무시간보다 근로시간 적게 조작, 하지만 조작된 근로시간만 인정

- 제보자는 애슐리에서 12년부터 14년까지 근무(월급제 트레이너) 현재 체불임금 사측에 신청했고 재정산 금액을 통보받음
-근무 당시 실제 근무시간은 08:00~23:00이였다면 회사 출퇴근기록부엔 08:00~17:00으로 입력됨, 이랜드 출퇴근 시스템은 매장 관리자가 지문 입력시간을 수정 할 수 있음. 이랜드측에 문의하자 “등록된 시간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

구체적 체불내역에 대해 공개 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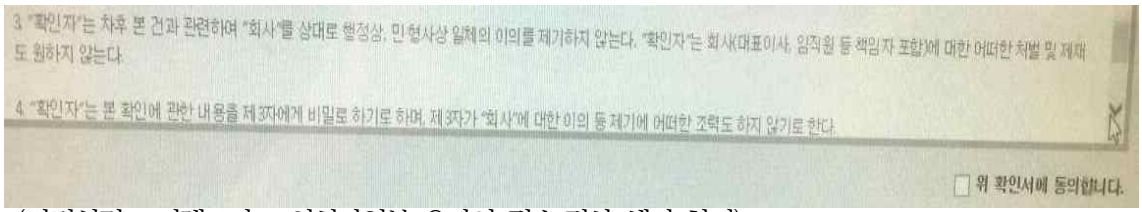
- 세부 내역은 무조건 본사에 메일을 보내야만 확인 가능함, 본인의 근무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 방

문해서 열람하고 본사와는 메일로 약속하라고 함

-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 제대로 받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 사측에 체불임금 신청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됨,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가 10여 만원 정도 다시 지급됨. 제대로 계산된 건지 모르겠다고 함

3. 부제소특약 동의를 전제로 한 자체 체불임금 계산

- 체불임금 신청자에게 임금체불액을 정산 받으며 '부제소특약'에 동의하도록 함



(사진설명 :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온라인 접수·정산 센터 화면)

- 사측 임금체불 정산 내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입금되면 이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제보자들 중 일부는 사측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체불임금을 정산한지 모르는데 15일까지 신청하라고 하니 이때까지 신청안하면 못 받는 게 아닌가하는 걱정도 있다고 함

4.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로 인한 미지급 문제

퇴직한지 2년, 소멸시효로 인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을 수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슐리 매출이 12년을 기점으로 13년도에 엄청난 피크를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피해에 대상이 되는 많은 인원에 대한 배상을 회피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 척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 이랜드의 법을 악한 용도로 남용하는 이런 못된 행동이 다시 유발되지 않고 기존의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랜드파크] 온라인 접수 · 정산센터 1:1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온라인 정산센터입니다.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보내드립니다.

[답변내용]

죄송합니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임에 따라 13년 10월 1일부터 16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지급액이 산정되었습니다.(해당 기간 근무 이력 모두 합산)

안타깝게도 13년 10월 이전 근무하신 이력에 대해서는 지급액이 발생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못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온라인 정산센터(http://desk.mveshley.co.kr) 내의 1:1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자 정보]

접수일	2017-01-16 오후 5:34:32
접수자	

[문의하신 내용]

제목	정산 대상자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이랜드 애슐리에서 약 1년정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무를 12년 11월 부터에서 13년 8월인가 9월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홈페이지에서는 13년 10월 이전 퇴사자도 2월 정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었는데 오늘 홈페이지 내용에는 10월 이전의 퇴사자는 정산의 대상이 아닌것처럼 나와있어서 한번더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13년 10월 이전에 퇴사한 인원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건가요 ?

(주)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5. 재직자에게 체불임금 청산 미안내

재직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신청 안내 없음

- 퇴직자들만 신청하라 하고, 현직자들에게는 신청하라는 이야기 없음 이것도 아는 퇴직자들만 신청하고 있음, 사측이 이야기를 아에 안해서 신청해도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함

재직자는 퇴직 시 체불된 임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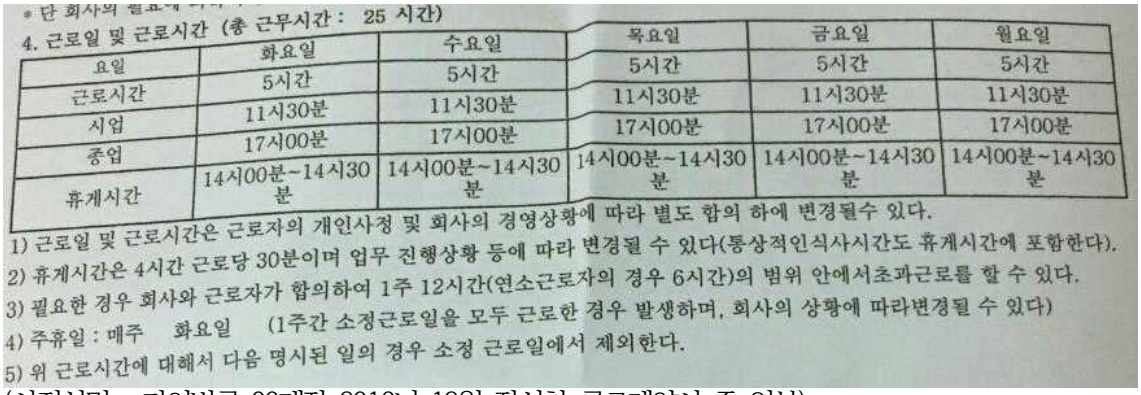
- 내부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체불임금을 퇴직할 때 준다고 함
- 아는 사람이 많고 오래 다녀서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 많음
- 정규직들도 물론 임금체불 문제에 불만은 있지만 이랜드 사람이기에 본사에서 퇴직자들에게 체불임금신청을 알리지 않고 퇴사시키면 모르는 퇴직자들은 넘칠 것임

- 2017.01.16부터 본사 재직자의 경우 재정산 급여 등 지급(연차수당은 퇴사시점 지급될 예정)할 예정이라 공지

(2017.01.16. 이랜드 외식사업부 온라인 접수·접수센터 화면)

3차례 사과에도 계속되고 있는 위법

1. 알바노동자 근로계약서 문제점



*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4. 근로일 및 근로시간 (총 근무시간 : 25 시간)

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근로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5시간
시업	11시30분	11시30분	11시30분	11시30분	11시30분
종업	17시00분	17시00분	17시00분	17시00분	17시00분
휴게시간	14시00분~14시30분	14시00분~14시30분	14시00분~14시30분	14시00분~14시30분	14시00분~14시30분

1)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개인사정 및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별도 합의 하에 변경될수 있다.
2)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당 30분이며 업무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통상적인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한다).
3) 필요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주 12시간(연소근로자의 경우 6시간)의 범위 안에서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4) 주휴일 : 매주 화요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변경될 수 있다)
5) 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음 명시된 일의 경우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사진설명 : 자연별곡 00매장 2016년 12월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일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변경

-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월~금:11시30분~17시(30분 휴게, 5시간 근무)로 약정했으나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월, 수: 11시30분~18시30분, 화, 목, 금:09시~17시(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상 한번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을 주휴일로 규정

- 근로계약서상 화요일이 상시 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일이 매주 화요일도 특정된 것도 특이한 점
- 다른 단시간노동자 근로계약서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임
- 근로계약 기본내용이라 할 수 있는 주휴일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본사나 관리 자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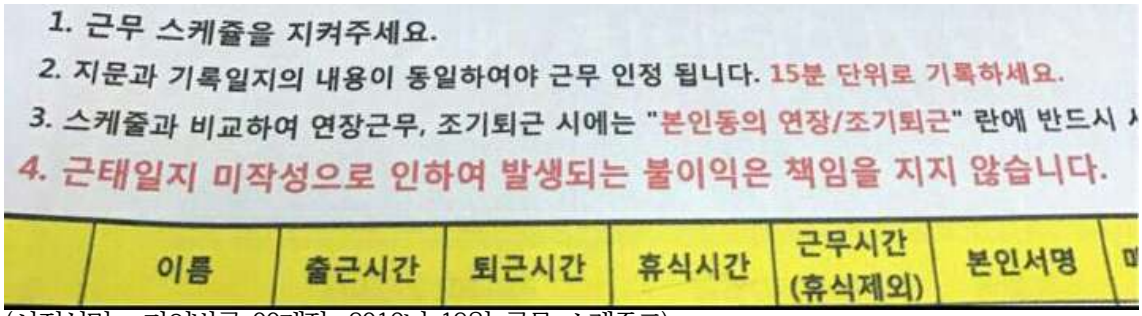
2. 매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점

사례①: 자연별곡 00매장 사례(휴게시간 미부여, 15분 단위 꺽기)

- 최근 입사해 한 달 째 접어드는 중
- 출퇴근기록부는 수기 작성, 15분단위로 체크하게 하고 있음
- 근로계약서 출퇴근시간과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전혀 다름
-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고 있음, 휴게시간 달라고 말했더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며 매장 바쁜 거

안보이냐며 눈치 줘서 쉬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스케쥴표 “본인 동의 연장/조기퇴근”란에 싸인케 함
- 각종 교육에 대해서는 한 것처럼 ‘가라 싸인’을 하고 있음
- 이후 휴게시간 미보장등으로 더 이상 일할 곳이 아니라 생각하고 퇴사함


1. 근무 스케쥴을 지켜주세요.
2. 지문과 기록일지의 내용이 동일하여야 근무 인정 됩니다. 15분 단위로 기록하세요.
3. 스케줄과 비교하여 연장근무, 조기퇴근 시에는 "본인동의 연장/조기퇴근" 란에 반드시
4. 근태일지 미작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름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식시간	근무시간 (휴식제외)	본인서명	

(사진설명 : 자연별곡 00매장, 2016년 12월 근무 스케줄표)

사례②: 애슐리 퀸즈 00매장(국감 지적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15분 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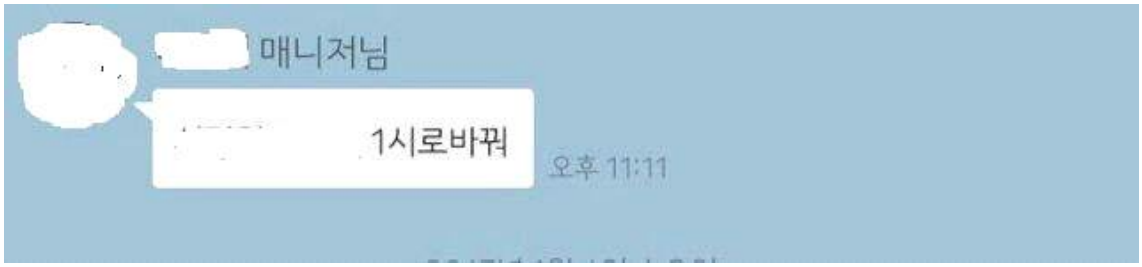
- 애슐리 퀸즈(애슐리의 프리미엄 브랜드) 현재 일하는 노동자 제보.
- “지난 달 이전에는 15분이 넘지 않으면 그냥 정시로(예를 들면 10시 13분인 경우 10시에 퇴근한 것으로 표기했음) 아마 야간수당을 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됨”

사례③: 애슐리 00매장(“개인사유”라며 강제 작성케 하고 조퇴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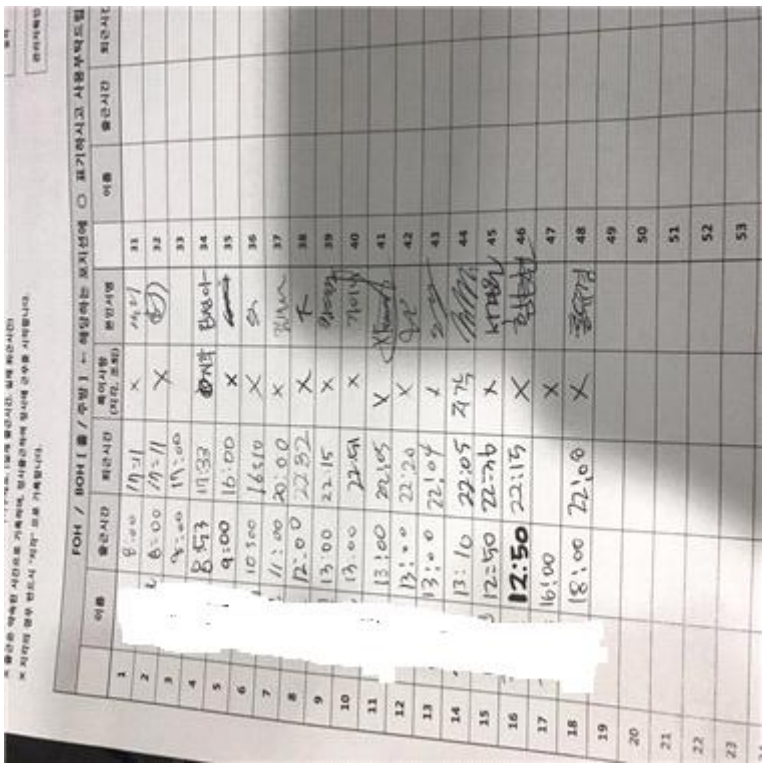
- 국감 지적 이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일찍 끝난 적이 있는데 매장 전체 직원들에게 “개인사유”라고 강제로 작성케 하고 퇴근시킴

사례④: 애슐리 00매장, 이랜드본사 혁신 5대 방안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는 문제점

① 근무시간 조작 여전. 지문 등록→수기 작성으로 근무 시간 조작이 더 쉬워짐, 준관리자들에게 계약된 시간과 다르게 시간을 줄이라고 말함, 퇴근 기록하는 노트가 두 개. 제보받은 사진을 보면 실제로 수기 출퇴근부 출근시간에 12시 50분 기록되어 있음에도 매장 담당자가 카톡으로 13시 조작 지시하고 실제 전산상에는 조작된 시간이 입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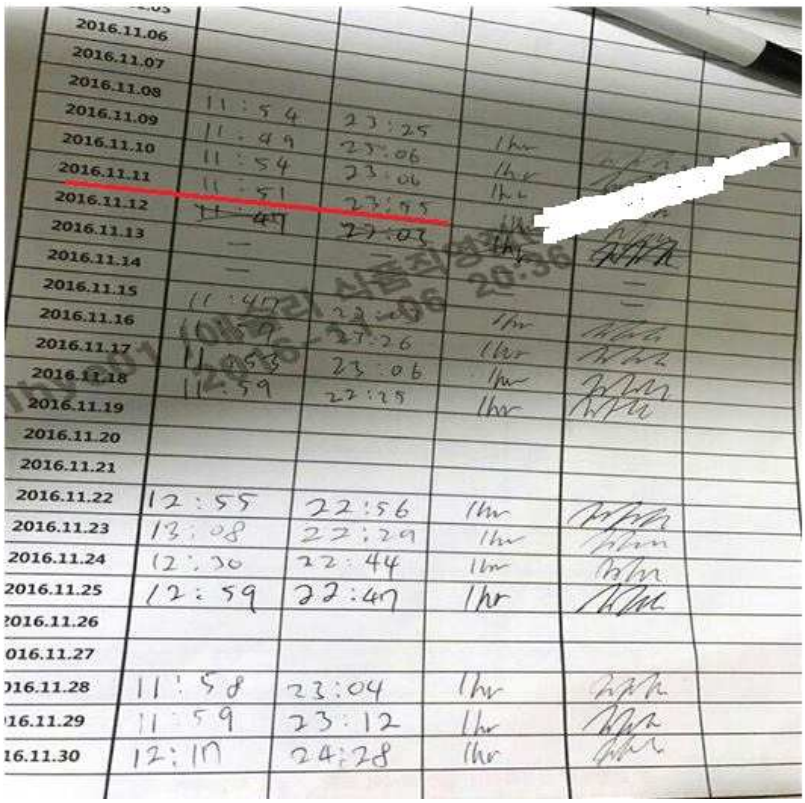
(사진설명 : 출근시간 조작을 지시하는 관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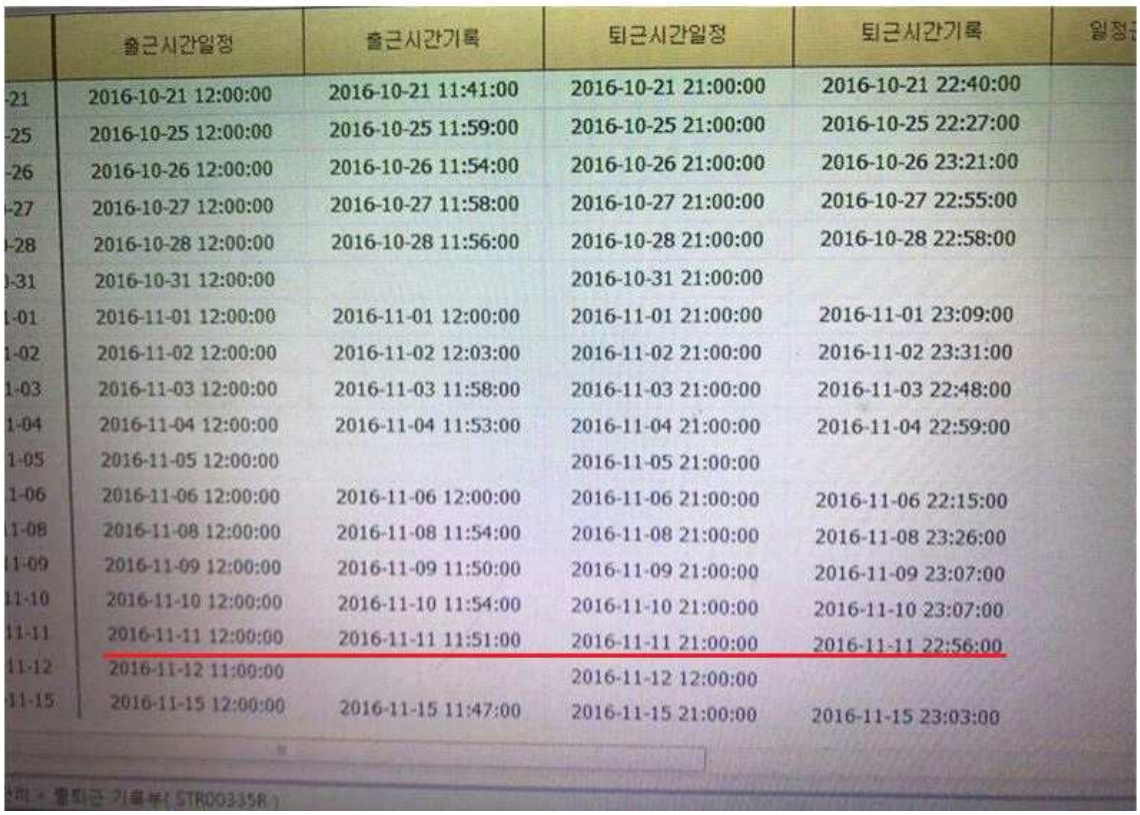
(사진 설명 : 수기 작성 출퇴근부, 15번 16번 알바의 경우 출근시간이 12시 50분으로 작성됨)

(사진 설명 : F1 시스템에서 매니저 지시대로 출근시간이 13시로 조작됨(각각 위에서 3번째, 네 번째 해당)

- 퇴근시간 조작. 2016.11.11. 수기 작성 퇴근(23:55)→이후 F1전산에서 2016.11.11. 퇴근시간 조작(2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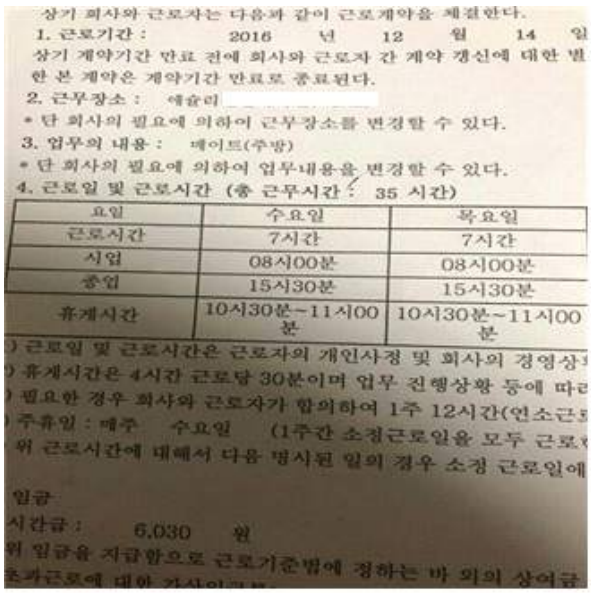
(사진 설명 : 수기 출퇴근부 기록, 퇴근시간: 23:55 작성됨)



	출근시간일정	출근시간기록	퇴근시간일정	퇴근시간기록	일정
-21	2016-10-21 12:00:00	2016-10-21 11:41:00	2016-10-21 21:00:00	2016-10-21 22:40:00	
-25	2016-10-25 12:00:00	2016-10-25 11:59:00	2016-10-25 21:00:00	2016-10-25 22:27:00	
-26	2016-10-26 12:00:00	2016-10-26 11:54:00	2016-10-26 21:00:00	2016-10-26 23:21:00	
-27	2016-10-27 12:00:00	2016-10-27 11:58:00	2016-10-27 21:00:00	2016-10-27 22:55:00	
-28	2016-10-28 12:00:00	2016-10-28 11:56:00	2016-10-28 21:00:00	2016-10-28 22:58:00	
-31	2016-10-31 12:00:00		2016-10-31 21:00:00		
-01	2016-11-01 12:00:00	2016-11-01 12:00:00	2016-11-01 21:00:00	2016-11-01 23:09:00	
-02	2016-11-02 12:00:00	2016-11-02 12:03:00	2016-11-02 21:00:00	2016-11-02 23:31:00	
-03	2016-11-03 12:00:00	2016-11-03 11:58:00	2016-11-03 21:00:00	2016-11-03 22:48:00	
-04	2016-11-04 12:00:00	2016-11-04 11:53:00	2016-11-04 21:00:00	2016-11-04 22:59:00	
-05	2016-11-05 12:00:00		2016-11-05 21:00:00		
-06	2016-11-06 12:00:00	2016-11-06 12:00:00	2016-11-06 21:00:00	2016-11-06 22:15:00	
-08	2016-11-08 12:00:00	2016-11-08 11:54:00	2016-11-08 21:00:00	2016-11-08 23:26:00	
-09	2016-11-09 12:00:00	2016-11-09 11:50:00	2016-11-09 21:00:00	2016-11-09 23:07:00	
-10	2016-11-10 12:00:00	2016-11-10 11:54:00	2016-11-10 21:00:00	2016-11-10 23:07:00	
-11	2016-11-11 12:00:00	2016-11-11 11:51:00	2016-11-11 21:00:00	2016-11-11 22:56:00	
-12	2016-11-12 11:00:00		2016-11-12 12:00:00		
-15	2016-11-15 12:00:00	2016-11-15 11:47:00	2016-11-15 21:00:00	2016-11-15 23:03:00	

(사진 설명 : 이후 F1 내부시스템에서 퇴근시간이 22:56으로 조작됨)

② 근로계약서상 주 35시간 계약했으나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 30시간으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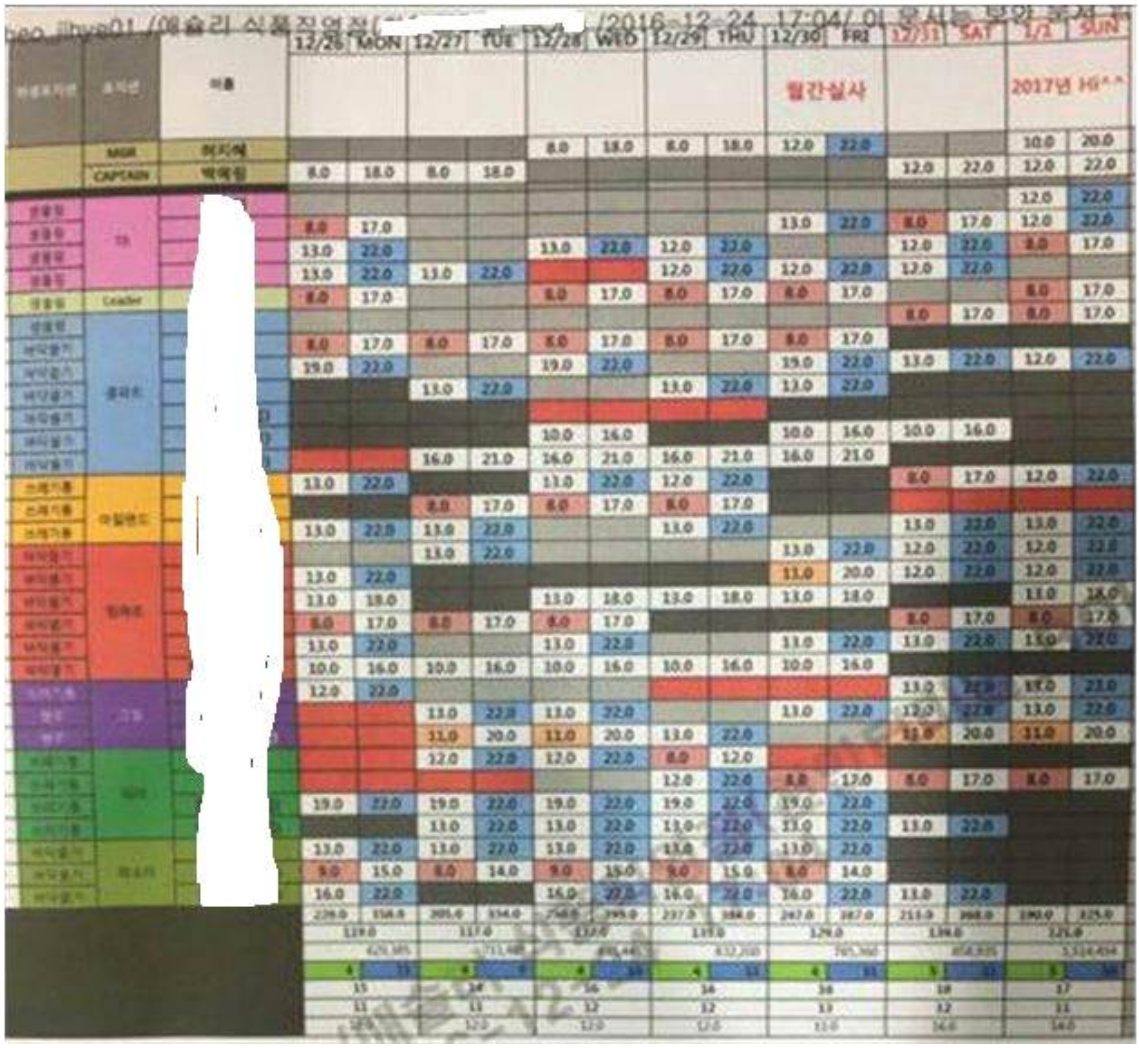


상기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기간 : 2016 년 12 월 14 일
상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 갱신에 대한 별
한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2. 근무장소 : 에슐리
*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3. 업무의 내용 : 메이트(주방)
*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근로일 및 근로시간 (총 근무시간 : 35 시간)

요일	수요일	목요일
근로시간	7시간	7시간
시업	08시00분	08시00분
종업	15시30분	15시30분
휴게시간	10시30분~11시00분	10시30분~11시00분

)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개인사정 및 회사의 경영상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당 30분이며 업무 진행상황 등에 따라
) 필요한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주 12시간(연소근로
) 주휴일 : 매주 수요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
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음 명시된 일의 경우 소정 근로일에
임금
시간급 : 6,030 원
위 임금을 지급함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 외의 상여금

(사진설명 : 애초 주35시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 내용)



(사진 설명 : 실제 스케쥴표, 노동자 동의 없이 주30시간 근무)

③ 주휴수당 미지급하기 위한 꼼수. 주4일 계약했으나 실제 주3일 근로하게 해 주휴수당 미지급

④ 매니저의 알바 사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기간 중 문제 매니저가 알바생이라고 사칭하며 알바생들의 입장을 대신 말하기도

허울좋은 '아르바이트 -> 정규직 1천명' 전환

1. 현재 헤드트레이너급 인력 부족 상황

- 정규직 준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어쨌든 정규직이 되니까 좋다곤 하지만 얼마나 부려먹을려고 하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다"고 함
- 현재는 헤드트레이너(정규직 말단사원)가 많이 그만두고 있는 상황으로 그 업무가 일반 트레이너로 많이 가고 그게 또 리더 메이트로 가다보니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이 쌓여 있는 시점

2. 정규직 채용은 인건비 절약

- 2007년~2011년 근무하고 캡틴으로 퇴사한 전직자의 제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월급제 활용,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올라갈수록 업무량·노동시간 증가 등 업무강도 증대"
- "알바생 1명을 추가로 쓰는 것 보다 정규직 월급제를 쓰는 게 인건비가 더 남는다. 왜냐하면 정규직 월급제의 경우, 그 당시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20시간)도 지급하지 않고, 더 많이 일을 시킴"
- "이번 이랜드의 정규직 1천명 전환은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

이랜드 타계열사 문제점

1. 사례①: 이랜드 리테일 신발 브랜드 "슈펜"

※ 제보자는 아웃소싱 업체(파견)를 통해 입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매장 매니져를 거쳐 퇴사함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파견노동자 고용

- 정직원: 10%, 아웃소싱업체를 통한 파견노동자: 90% 차지
- 제보자는 아웃소싱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됨
- 아웃소싱 업체 통해 파견노동자로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정규직 전환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파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

- 매일 2시간 이상씩 연장근로는 당연한 것으로 교육하고, 인식하는 분위기
- 근로계약서 문구에는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명시

주먹구구식인 인사관리

- 매장 슈퍼바이저(지역담당자)에 의해 눈에 띄면 구두로 별도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전환됨 (예. 고객에 대한 멘트가 좋다고 보이면 바로 다음날 매장 매니저가 됨)
- "직원이 희생해야 한다", "직원 (강도 높은) 노동은 당연하다"는 분위기로 다른 업체와는 많이 다른 특유의 분위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 (원래 정해진 퇴근시간 1~2시간 전, 매장 직원들을 불러 모은 다음 우선 지문을 찍어 퇴근처리 후 보통 2시간씩 연장 근무. 연장근무에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며 본사 교육 시 '봉사' 개념이라고 교육

'생리휴가'미부여, 휴게공간 없음

- 생리휴가 전혀 부여하지 않았고, 근무 중 1시간 쉬었으나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어 박스 깔고 앉았다가 근무함

박성수 회장 등 임원진 방문시 무급 청소

- 보통 새벽 1시까지 청소함
- 이는 "본사 지침"임→군대 사단장 방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함

종교 강요

- 아침마다 기독교 행사(QT) 진행 함→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진급 상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2. 사례②: 이랜드 리테일

- 뉴코아, NC 백화점, 2011아울렛 식품 매장 등 영업매장, 각 매장 층별 관리하는 관리직.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3. 사례③ : 이랜드 계열사 00사업장

기도시간 꺽기

- 출근시간 이전부터 사내에서 각 부서별 기도시간 시작, 매일 사목 설교, 찬송가 제창 등 진행
- 사측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부서별로 참석 공지 및 매일 참석자 체크, 기독교 활동을 카톡방에 사진 촬영해 남김
- 인사고과에 반영해 기도시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
- 각 부설별 '마음의 책'(성경 내용이 주) 구입케 함
- 40분에 대한 별도 연장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음
- 회사측은 '자율적인 선택'이다. '본사의 방침이다'.라고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수당 과소 산정

- 휴게시간 없이 종일 근무,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지 않음

부당노동행위 만연

-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등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인정됨
- 노조 탈퇴 종용, 노조간부 직위해제하는 방식

산재

- 산재 빈발, 최근 산재사고 2.5배 증가하나 회사측은 공상 처리로 유도, 시정조치 없음

지문등록기

- 10여전에 다른 계열사에서도 도입했다가 오히려 시간외수당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어 2009년쯤부터 없앰

5. 사례⑤: 이랜드 00사업장

- 일주일 1회, 근무시간 중 1시간~1시간 30분 '경영설명회'→'목요모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가면서 30분 정도 찬송가, 기도, 설교 등이 이루어짐(무조건 참석해야 함)

6. 사례⑥: 2000년대 중반 이랜드 계열사에서 일했던 노동자

- 수년 동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이랜드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개념이 없다"

7. 사례⑦: 이랜드 본사 '지식몰'

- 이랜드 본사 '지식몰'. 그룹 차원에서 인사노무사례를 공유해서 사측입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성과급이나 승진에 가점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아마 애슐리 사례도 본사 차원에서 개입되서 진행됐을 것"

8. 사례⑧: 이랜드 리테일 정규직

- 연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풀타임 근무를 당연시 함
- 연차휴가는 등록만 하라고 하나 정작 다 쉬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주려고 하지 않음
- 출산휴가도 눈치 줘서 반도 못쓰고 출근
- 인사팀의 모과장은 연차수당 줄이는 프로젝트로 승진했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
- 강남에 있는 모점포의 경우, 행사하는 날은 07시부터 출근시켜서 매출이 없으면 강제로 밤 11시 혹은 마감시간인 밤12시까지 근무시킴, 한 달에 두세번은 기본

9. 사례⑨: 켄싱턴00호텔

- 포괄임금제로 연장수당 52시간, 휴무 관련 이랜드 계열 호텔들도 문제가 많 음
- 예를 들어 이번 달에 휴무가 8개 발생하였는데 하루를 못 쉬었을 경우 수당이나 대휴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52시간에 8시간을 포함시켜서 처리
- 문서상으로 직접 확인은 해보지 못하였으나 현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과 회사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가 너무 상이함

10. 사례⑩: 이랜드월드(2년 6개월 근무 후 퇴사, 열정페이)(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이랜드월드 3년 일한 경험을 토대로 고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하는 정당, 정의당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약 2년 6개월 간 이랜드월드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을 끝으로 퇴사를 한 남자입니다.

요즘 이랜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는 동안 정말 이건 아닌데 싶었던, 공정거래위반, 노동법 위반, 취업준비생 희망고문과 열정페이, 이렇게 3가지 정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 자료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거래위반. 현재 이랜드월드에는 알리기팀이라는 바이럴마케팅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하는 업무는 이랜드월드 내, 패션, 외식, 유통을 SNS 을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회사들도 하는 업무지요. 하지만 문제는 페이스북 파워 유저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유저) 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소정의 페이를 받아 광고를 진행합니다" 라는 공시를 하지 않은 채로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만명의 고객들은 기업에서 만들어낸 콘텐츠에 속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오롱, P&G 등에서도 블로거들에게 공시를 하지 않고, 바이럴 마케팅을 진행해서 억대 위약금을 물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이랜드도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노동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랜드월드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 근무였습니다. 하지만, 이랜드의 기독교 문화로 인해서 9시가 아닌 매일 7시에 출근하여서 1시간 동안 QT 라는 기독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8시부터는 근무를 시작하였고요. 야근은 말할 것도 없지만, 2시간 조기 출근은 너무 힘겨웠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준비생 희망고문과 열정페이입니다. 저는 이랜드월드에서 2년 6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된 이유는, 이랜드월드 인턴 근무를 하다가, 정직원 전환에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턴 팀장에게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정직원 전환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1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회사 사정상 이번에 정직원 전환은 힘들고, 6개월 계약직을 더 연장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6

개월 간 일했지만, 6개월 후에도 같은 피드백으로 정직원 전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현재 이랜드월드에 2~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희망고문을 하는 이랜드월드, 그로인 해 버려진 제 2년 6개월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또한, 열정페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이랜드월드 내 바이럴마케팅팀에는 트레이니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상대로,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인턴 제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학생들에게 순수하게 업무 경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 싼 값에 대학생들을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원 전환을 보장해주는 인턴 제도도 아닌, 정식 인턴 가산점을 준다는 혜택으로 대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인가 4기까지 진행되었는데, 단 1명도 정식 인턴에 합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7시 출근을 강요당하였습니다. 임금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정말 쓰레기 같은 제도 입니다.

정말 이랜드월드에서의 2년 6개월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현재 제 월급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1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사고, 직원들 성과금은 주면서, 공장들, 업체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주고 있는 이랜드.. 진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11. 사례⑪: 이랜드 월드(알바비, 업체 대금 미지급, 이제는 정직원 월급까지 미지급) (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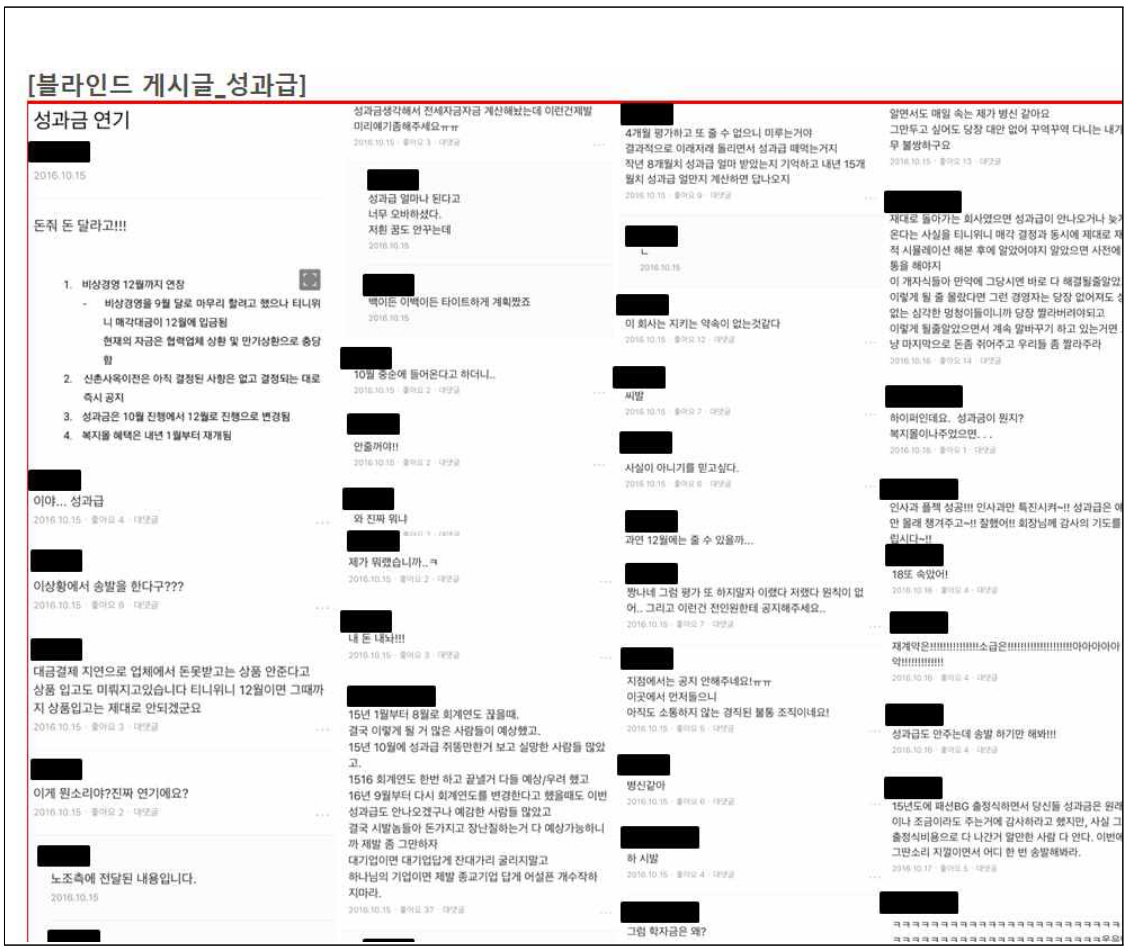
원래는 10월에 지급되어야 하는 직원들 성과급이 밀리고 있습니다.
11월에 준다고 했다가, 12월에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12월과 2월에 나눠서 준다고 했습니다. "회계년도를 계속 바꿔가며, 성과급 지급일을 계속적으로 변경"하는 아주 눈에 보이는 사기꾼 같은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꼭 지급되어야 하는 복지몰 포인트가 원래는 9월에 들어왔어야 했으나, 이것마저 1월로 밀리고, 현재 1월이지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는 이랜드"는 회사의 이런 횡포에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원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블라인드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블라인드에 계속 올려도 회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정미 의원님에게 도움이

되고자, 여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이랜드는 정직한 기업, 기독교 기업을 내세워 불법을 하지 않는 척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그 어느 기업보다 더 심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알바비, 업체 대금 미지급, 이제는 정직원 월급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이랜드의 갑질 횡포, 대한민국에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 박성수 회장은 현재 미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미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있는 상태입니다.(미국에서 예술품 경매에 빠져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이 꼭 필요합니다.)



[블라인드 게시글_복지몰]

복지몰 포인트 받은 분 있나요?

[redacted]
2016.11.14

11월 30일에 소멸이라는데..
주고 소멸 좀...ㅜㅜ

좋아요 9 | 댓글 8

[redacted]
포인트 내년1월에 준다는데.것도 확정은 아닌듯요ㅋㅋ
2016.11.14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상반기준거 소멸시킨다는 말이죠..
2016.11.14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상반기에도받은건없는데...
2016.11.14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리태일은 상반기 받았어요.. 하반디 안준거고요..
2016.11.14

[redacted]
진심 부러워요~~~ 외식은상반하반다못받았는데....
2016.11.14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복지몰이 없어지는데 내년1월에 포인트 어찌줌? ㅋㅋㅋㅋ
2016.11.14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올해것까지, 소급해서 줘야되는거 아닌가??
2016.11.15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중국은 상반기 줬다가 가져가고 다시 안돌려줬음.....
2016.11.19 · 좋아요 · 대댓글

성과급 미지급 타격없으세요??

[redacted]
2016.11.30

성과급 미지급 소문에 대해선
다른소문에 비해 묻히는 감이 있어서요
저만 민감한건지...
당장 10월성과급 최소 1백은 들어올거라계산하고(c는 안받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대출이자 땡겨놨는데
12월에 성과급 나온데서 대출에 대출을 받아놨거든요
회사가어려우니 이해하자했습니다
근데 미지급??????
이건 계약위반사항 아닌지 엄연히 연봉계약시 성과급 부분이 나와있고,
회사도 12월에 지급될거랬는데 안나온다????
내 대출에 대출받은건??
돈 100만원 작은돈이지만 직원은 회사를 믿고 금융거래를 하는데...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직원들 코묻은돈 안줄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코묻은 돈에 사채까지 써야하는 직원들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안나오는건 마음 아픈데 성과급이란게 회사 실적에 따라 나오는 것이고, 나오지 않아도 계약위반은 아닌듯요, 연봉계약서에 성과급을 얼마주겠다고 적혀있지 않으니
2016.11.3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저도 힘들어요
2016.11.3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이미 못 받고 있는 사업부들이
재법 있었다고 하는 걸로 봐선
위반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다들 힘 드신 듯 합니다
2016.11.30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참고로 전 유통이고, 사업부 지점모두 성과가 있었으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2016.11.30

[redacted]
정말 힘들면 12개월 분할로 주세요

ㅠㅠ위반사항은 아니군요...
그래도 회사에 실망한 마음은 좀허지지않네요
열심히 일한보람으로 돈백만원도못받는다하니
2016.11.30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아니 처음부터안주던가 유통은 성과가낫고 준다고 했으나 미뤳는데 안주는건 위반사항이지않을까 싶은 개인적 바램이네요
이 개같은회사 망해라
2016.11.3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는건 참....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네요
2016.11.30

[redacted]
내 돈 내놔!!!
이 버러지 같은.....
내 성과금!!!!!
2016.11.3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미뤄서 12월에 준다고 경영자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실꺼라 믿습니다

네 믿어보겠습니다ㅠㅠ 지인들에게 돈빌려야할 상황은 제발 회사가 안만들어줬음
2016.11.30

[redacted]
성과급 지급안되면 신보상 기 지급된 업적급등도 다 회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016.12.01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 무슨의미인지요 ???
2016.12.01

[redacted]
성과급의 지급 전제조건이 티니위니 매각대금 입금이었으니
매각불발되지 않는이상 좀더 기다려보지요!
2016.12.01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여기서 설왕설래하며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면죄부를 주는 여지 마련해서는 안되죠!
즉 여론몰이가 되어서는 네버...

12. 사례⑫: 근로계약서보다 1시간 일찍 7시 출근, 종교 강요, 개인 사비로 필도서 구매(매주 또는 2주 1번꼴)(당 노동상담 게시판)

이랜드월드는 노조가 없습니다. 무조건 통보받을 뿐입니다.
계약서에는 업무시간이 명백히 8:00-17:00라고 써져있습니다.
하지만, 깜깜한 새벽에 첫 차를 타고 7시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7시 1분이라도 되면 아침밥을 먹지 못합니다. 7시 땡하면 사옥관리팀 사람들이 식사를 다 치웁니다.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고 7시 20분부터 큐티를 합니다.
성경 조 모임이 있어 내려앉는 눈꺼풀을 올리며 하는척을 합니다.
성경모임을 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7시부터 아침밥 먹으면서 바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랜드월드 어떤 직원들의 메일함을 보더라도 아침 7시부터 찍힌 전날 브랜드 매출보고, 공유 등
계약시간인 8시 보다 이른 시간에 모든 업무가 시작된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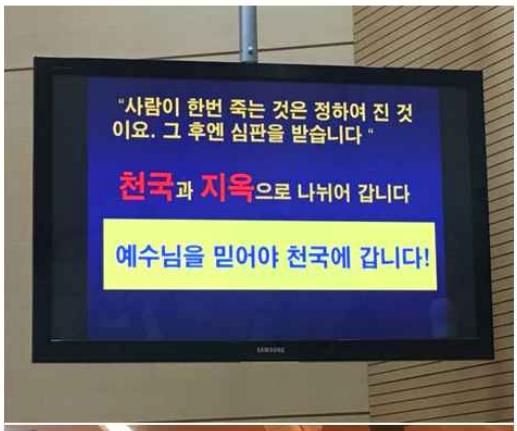
(일주일에 1회 패션BG, 유통BG, 미래BG 전 마케터들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는 '마카데미'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케팅 관련 필독서 나눔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용 필독서 책은 개인 사비로 구매하도록 강요합니다. 매주 또는 2주에 한번 책을 사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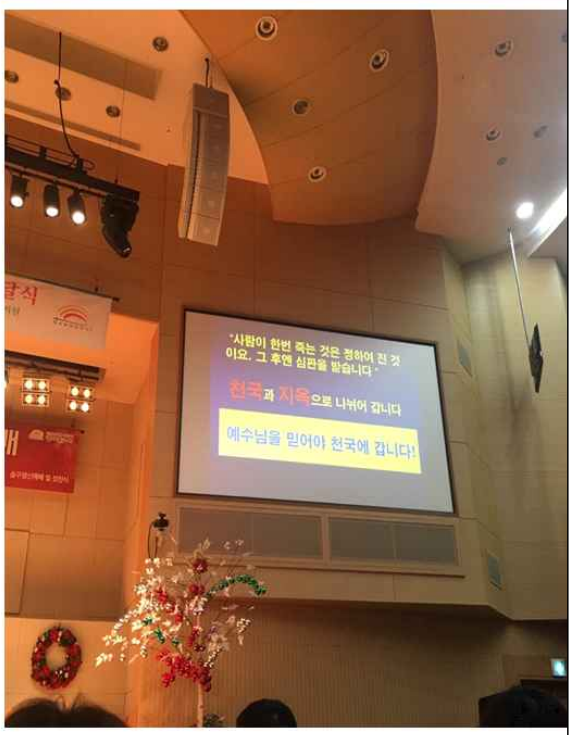
7시 출근, 정확한 노동법상 4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4시에 퇴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장(매장) 가는 사람만 있을 뿐 입니다.
4시에 가방 싸들고 가는 사람들을 아무도 퇴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마감시간인 5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기엔 꿈만 같은 시간입니다.
특히 월요일 야근이 정말...심합니다. 보통 10시, 11시, 12시퇴근이며
야근수당은 월 10시간으로 책정되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두번이면 한 달 야근수당 다 채웁니다. 추가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전날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새벽 1시 퇴근하든 다음날 오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아침 7시.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더욱 심각하며
신입사원(연수)의 경우 회장님 강의가 있는 날이면 새벽 6시30분까지 착석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전직원 전무님 소통강의는 남서울 교회에서 한 달에 한번 진행되는데, 8시 정각 시작하기 때문에
10분 일찍 오도록 브랜드에서 팀별로 출첵을 합니다. 조식은 7시부터 30분간만 제공됩니다.

알바비만 가로챈 것이 아닙니다. 가산사옥 정직원들에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수백, 수 천억원의 1시간 일찍 출근수당, 야근수당을 가로챈 곳이 이랜드월드 입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해 빨라진 업무농도, 질로 인한 회사의 매출, 야근하여 올린 매출....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랜드월드는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 직원 대상 종교 강요!!!!!이랜드월드(패션BG) 전무님 강의PPT 중
장소: 남서울교회(신풍)





패션BG, 유통BG, 미래BG 전 마케터 필수참석 교육
아침7시~8시 진행. 개인 사비로 필독서 구매, 발표필수
출석율이 마케터 평가에 반영된다고 사전 공지됨

1. 마카데미 공지

- 장소 : 이랜드 가산 사옥 소강의장
- 일시 : 7 월 7 일 (목요일) 아침 7:00~8:00
- 내용 : 필독서 발표 _ 1 초안에 떠오르는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비밀**

발표일	책	발표 항목	BG	소속	이름	직급
07월 7일	글로벌 브랜드의 성공비밀	1장제품 구매와 브랜드의 역할	유통BG			
		2장브랜드 포지셔닝 전략	유통BG			
		3장소비자 마음을 읽는 리서치	유통BG			
		4장계량적 리서치와 브랜드 강도	미래BG			
		5장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유통BG			
		6장브랜드 소통과 리포지셔닝	유통BG			

* 발제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다음주 수요일 오전까지 발표자료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2. 7월 14일 마카데미 사전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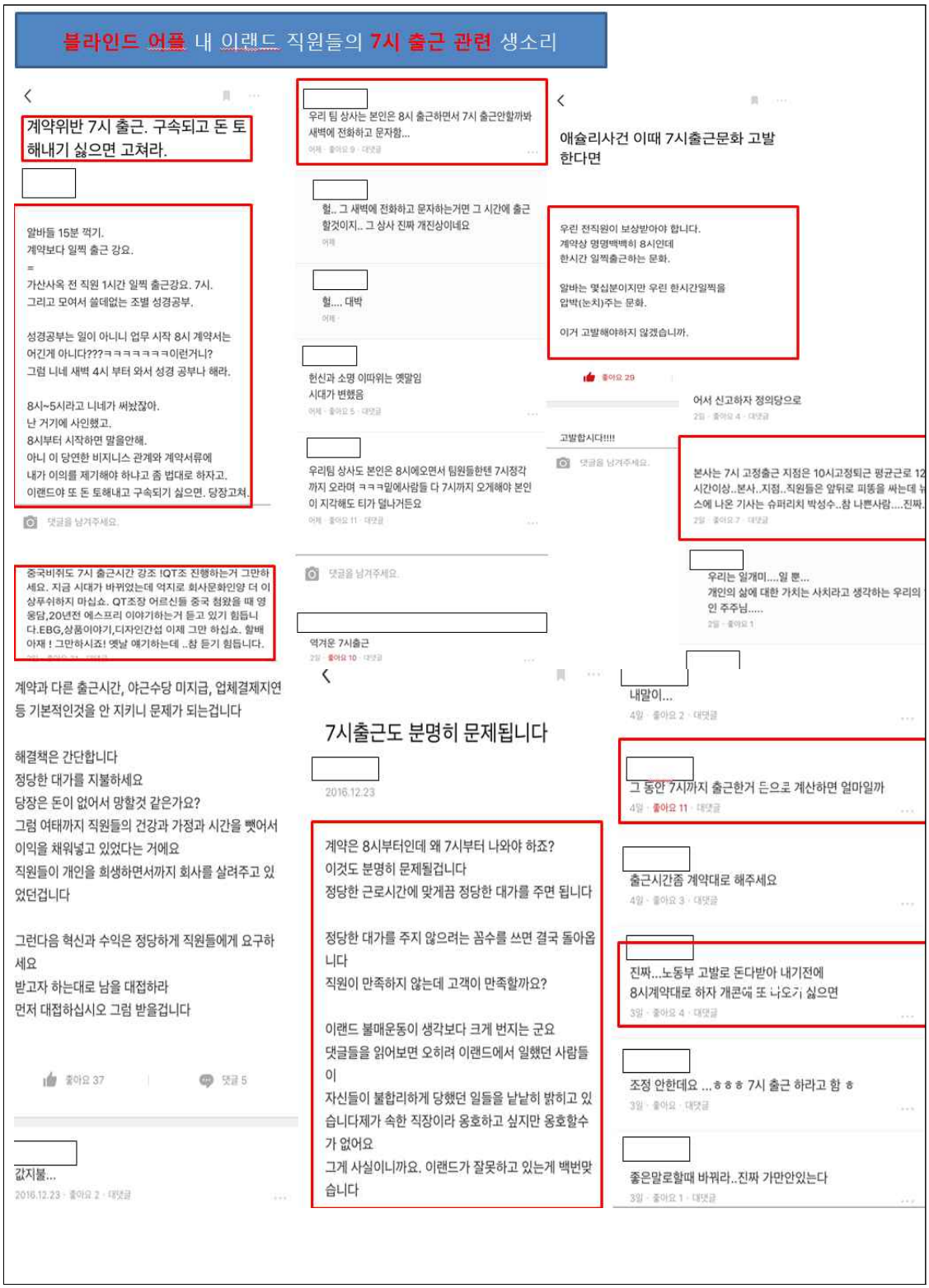
- 장소 : 이랜드 가산 사옥 소강의장
- 일시 : 7 월 14 일 (목요일) 아침 7:00~8:00
- 내용 : sight wider 강의가 진행됩니다. (발표자 [redacted]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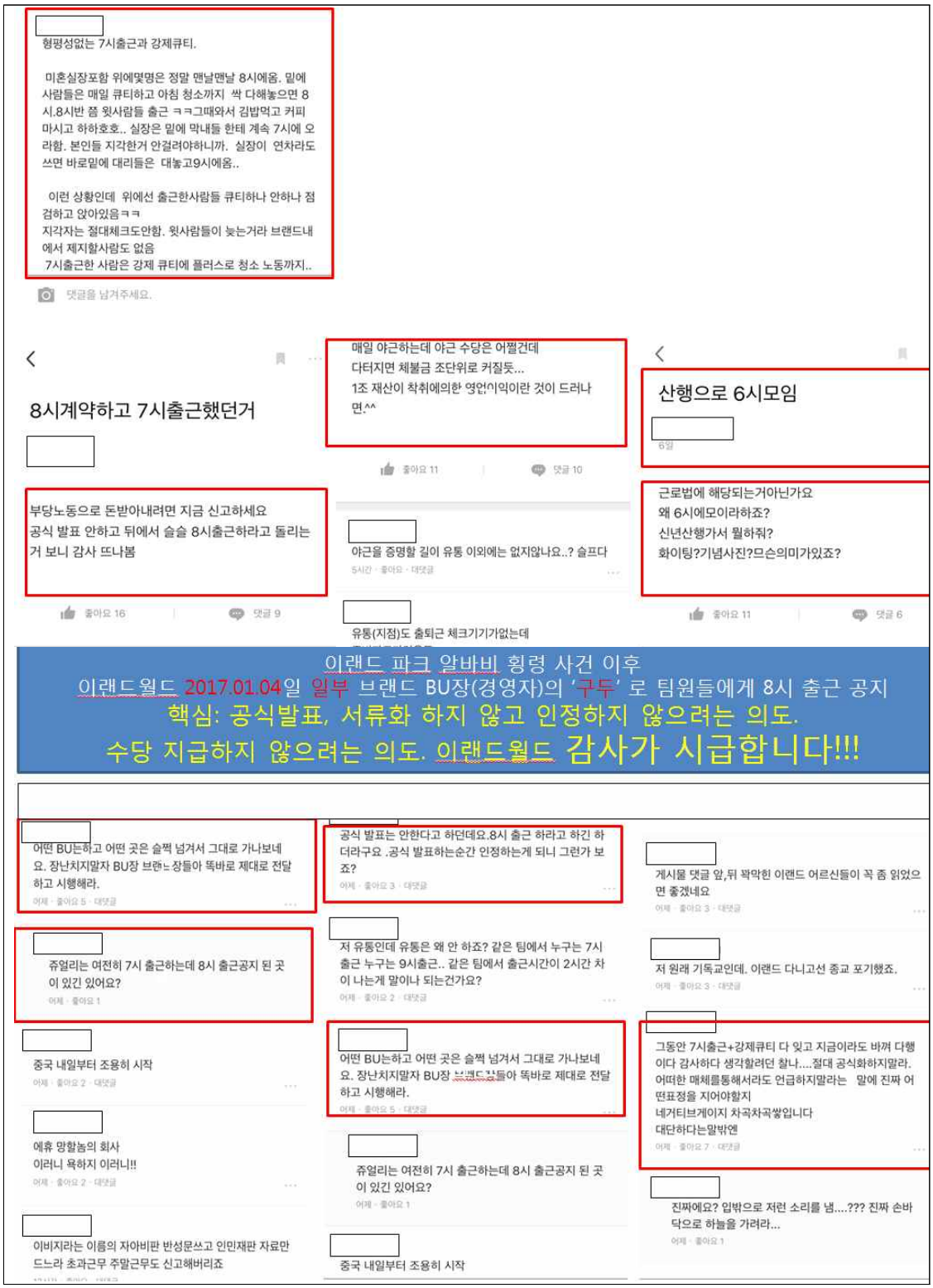
3. 다음 필독서 안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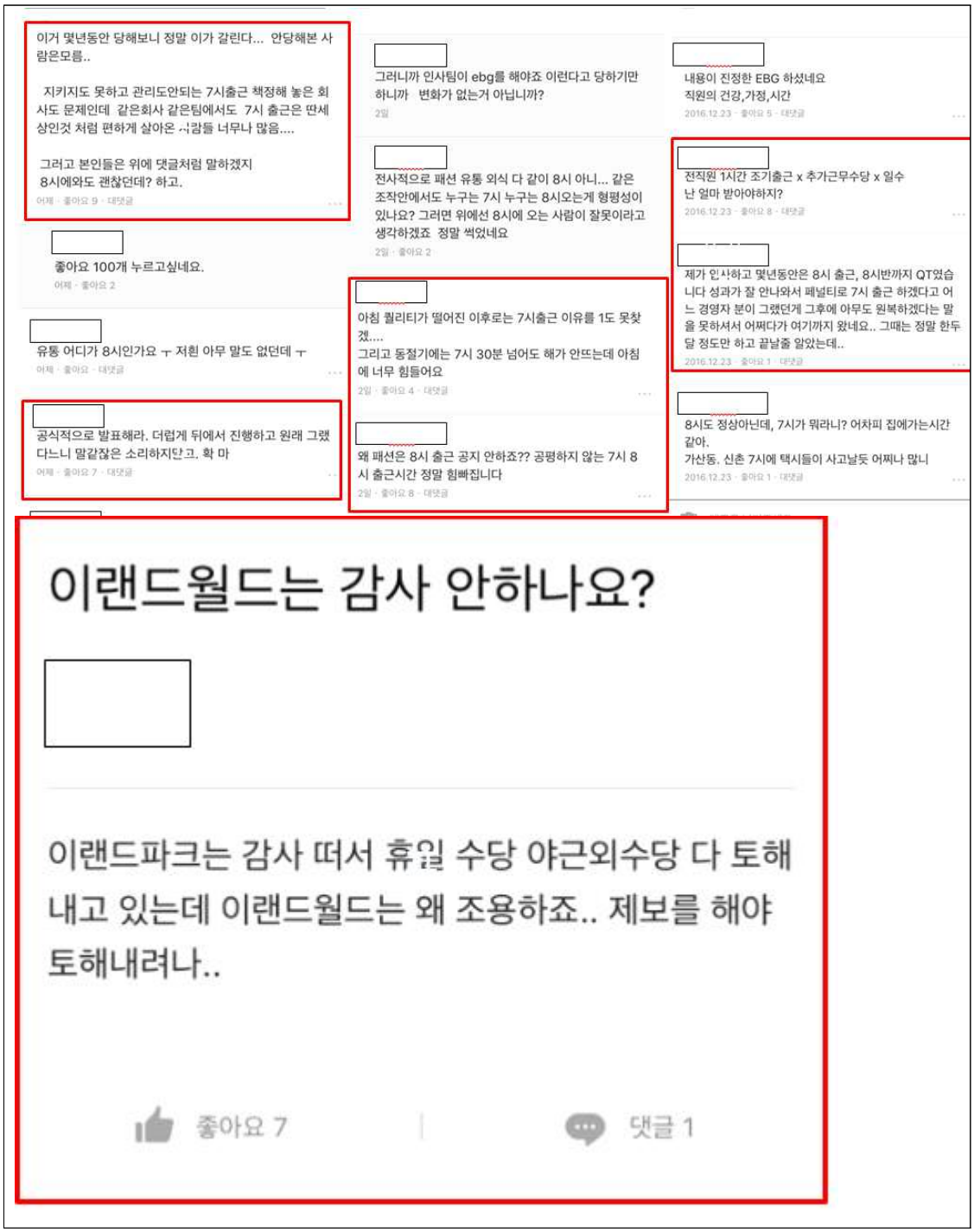
-필독서 명 : 푸마리턴 사망선고 브랜드의 화려한 부활 전략

- 도서 구입 링크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6723083

참고하셔서 미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서 발표자는 추후 메일로 공지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어플 내 이랜드 직원들의 7시 출근 관련 생소리
계약위반 7시 출근. 구속되고 돈 토해내기 싫으면 고쳐라.
알바들 15분 꺽기.
계약보다 일찍 출근 강요.
=
가산사옥 전 직원 1시간 일찍 출근강요. 7시.
그리고 모여서 쓸데없는 조별 성경공부.
성경공부는 일이 아니니 업무 시작 8시 계약서는
어긴게 아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이런거니?
그럼 니네 새벽 4시 부터 와서 성경 공부나 해라.
8시~5시라고 니네가 써놨잖아.
난 거기에 사인했고.
8시부터 시작하면 말을안해.
아니 이 당연한 비지니스 관계와 계약서류에
내가 이의를 제기해야 하냐고 좀 법대로 하자고.
이랜드야 또 돈 토해내고 구속되기 싫으면. 당장고쳐.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국비하도 7시 출근시간 강조 !QT조 진행하는거 그만하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억지로 회사문화인양 더 이상 푸쉬하지 마십쇼. QT조장 어르신들 중국 첨왔을 때 영웅담,20년전 에스프리 이야기하는거 듣고 있기 힘듭니다.EBG,상품이야기,디자인간섭 이제 그만 하십쇼. 할배 아재 ! 그만하시죠! 옛날 얘기하는데 ..참 듣기 힘듭니다.
계약과 다른 출근시간, 야근수당 미지급, 업체결제지연 등 기본적인것을 안 지키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당장은 돈이 없어서 망할것 같은가요?
그럼 여태까지 직원들의 건강과 가정과 시간을 뺏어서 이익을 채워넣고 있었다는 거에요
직원들이 개인을 희생하면서까지 회사를 살려주고 있었던겁니다
그런다음 혁신과 수익은 정당하게 직원들에게 요구하세요
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럼 받을겁니다
좋아요 37
댓글 5
값지불...
2016.12.23 · 좋아요 2 · 대댓글
우리 팀 상사는 본인은 8시 출근하면서 7시 출근안할까봐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함...
어제 · 좋아요 9 · 대댓글
헐.. 그 새벽에 전화하고 문자하는거면 그 시간에 출근 할것이지.. 그 상사 진짜 개진상이네요
어제
헐.... 대박
어제
헌신과 소명 이따위는 옛말임
시대가 변했음
어제 · 좋아요 5 · 대댓글
우리팀 상사도 본인은 8시에오면서 팀원들한텐 7시정각까지 오라며 ㅋㅋㅋ밑에사람들 다 7시까지 오게해야 본인이 지각해도 티가 덜나거든요
어제 · 좋아요 11 · 대댓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역겨운 7시출근
2일 · 좋아요 10 · 대댓글
7시출근도 분명히 문제됩니다
2016.12.23
계약은 8시부터인데 왜 7시부터 나와야 하죠?
이것도 분명히 문제될겁니다
정당한 근로시간에 맞게끔 정당한 대가를 주면 됩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는 꼼수를 쓰면 결국 돌아옵니다
직원이 만족하지 않는데 고객이 만족할까요?
이랜드 불매운동이 생각보다 크게 번지는 군요
댓글들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랜드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합리하게 당했던 일들을 낱낱히 밝히고 있습니다제가 속한 직장이라 옹호하고 싶지만 옹호할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이랜드가 잘못하고 있는게 백번맞습니다
애슐리사건 이때 7시출근문화 고발 한다면
우린 전직원이 보상받아야 합니다.
계약상 명명백백히 8시인데
한시간 일찍출근하는 문화.
알바는 몇십분이지만 우린 한시간일찍을
압박(눈치)주는 문화.
이거 고발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29
어서 신고하자 정의당으로
2일 · 좋아요 4 · 대댓글
고발합시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사는 7시 고정출근 지점은 10시고정퇴근 평균근로 12시간이상..본사..지점..직원들은 알뒤로 피똥을 싸는데 뉴스에 나온 기사는 슈퍼리치 박성수..참 나쁜사람....진짜..
2일 · 좋아요 7 · 대댓글
우리는 일개미....일 뿐...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 주주님.....
2일 · 좋아요 1
내말이...
4일 · 좋아요 2 · 대댓글
그 동안 7시까지 출근한거 든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
4일 · 좋아요 11 · 대댓글
출근시간좀 계약대로 해주세요
4일 · 좋아요 3 · 대댓글
진짜...노동부 고발로 돈다받아 내기전에
8시계약대로 하자 개콘에 또 나오기 싫으면
3일 · 좋아요 4 · 대댓글
조정 안한데요 ...ㅎㅎㅎ 7시 출근 하라고 함 ㅎ
3일 · 좋아요 · 대댓글
좋은말로할때 바꿔라..진짜 가만안있는다
3일 · 좋아요 1 · 대댓글


형평성없는 7시출근과 강제큐티.
미혼실장포함 위에몇명은 정말 맨날맨날 8시에옴. 밑에 사람들은 매일 큐티하고 아침 청소까지 싹 다해놓으면 8시.8시반 쯤 윗사람들 출근 ㅋㅋ그때와서 김밥먹고 커피 마시고 하하호호.. 실장은 밑에 막내들 한테 계속 7시에 오라함. 본인들 지각한거 안걸려야하니까. 실장이 연차라도 쓰면 바로밑에 대리들은 대놓고9시에옴..
이런 상황인데 위에선 출근한사람들 큐티하나 안하나 점검하고 앉아있음ㅋㅋ
지각자는 절대체크도안함. 윗사람들이 늦는거라 브랜드내에서 제지할사람도 없음
7시출근한 사람은 강제 큐티에 플러스로 청소 노동까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8시계약하고 7시출근했던거
부당노동으로 돈받아내려면 지금 신고하세요
공식 발표 안하고 뒤에서 슬슬 8시출근하라고 돌리는거 보니 감사 뜨나봄
좋아요 16
댓글 9
매일 야근하는데 야근 수당은 어쩔건데
다터지면 체불금 조단위로 커질듯...
1조 재산이 착취에의한 영업이익이란 것이 드러나면.^^
좋아요 11
댓글 10
야근을 증명할 길이 유통 이외에는 없지않나요..? 슬프다
5시간 · 좋아요 · 대댓글
유통(지점)도 출퇴근 체크기기가없는데
산행으로 6시모임
6일
근로법에 해당되는거아닌가요
왜 6시에모이라하죠?
신년산행가서 뭘하줘?
화이팅?기념사진?므슨의미가있죠?
좋아요 11
댓글 6
이랜드 파크 알바비 횡령 사건 이후
이랜드월드 2017.01.04일 일부 브랜드 BU장(경영자)의 '구두' 로 팀원들에게 8시 출근 공지
핵심: 공식발표, 서류화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
수당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 이랜드월드 감사가 시급합니다!!!
어떤 BU는하고 어떤 곳은 슬쩍 넘겨서 그대로 가나보네요. 장난치지말자 BU장 브랜드장들아 똑바로 제대로 전달하고 시행해라.
어제 · 좋아요 5 · 대댓글
쥬얼리는 여전히 7시 출근하는데 8시 출근공지 된 곳이 있긴 있어요?
어제 · 좋아요 1
중국 내일부터 조용히 시작
어제 · 좋아요 2 · 대댓글
에휴 망할놈의 회사
이러니 욕하지 이러니!!
어제 · 좋아요 2 · 대댓글
이비지라는 이름의 자아비판 반성문쓰고 인민재판 자료만드느라 초과근무 주말근무도 신고해버리죠
공식 발표는 안한다고 하던데요.8시 출근 하라고 하긴 하더라구요 .공식 발표하는순간 인정하는게 되니 그런가 보죠?
어제 · 좋아요 3 · 대댓글
저 유통인데 유통은 왜 안 하죠? 같은 팀에서 누구는 7시 출근 누구는 9시출근.. 같은 팀에서 출근시간이 2시간 차이 나는게 말이나 되는건가요?
어제 · 좋아요 2 · 대댓글
어떤 BU는하고 어떤 곳은 슬쩍 넘겨서 그대로 가나보네요. 장난치지말자 BU장 브랜드장들아 똑바로 제대로 전달하고 시행해라.
어제 · 좋아요 5 · 대댓글
쥬얼리는 여전히 7시 출근하는데 8시 출근공지 된 곳이 있긴 있어요?
어제 · 좋아요 1
중국 내일부터 조용히 시작
게시물 댓글 앞,뒤 꽉막힌 이랜드 어르신들이 꼭 좀 읽었으면 좋겠네요
어제 · 좋아요 3 · 대댓글
저 원래 기독교인데. 이랜드 다니고선 종교 포기했죠.
어제 · 좋아요 3 · 대댓글
그동안 7시출근+강제큐티 다 잊고 지금이라도 바껴 다행이다 감사하다 생각할려던 참나....절대 공식화하지말라. 어떠한 매체를통해서라도 언급하지말라는 말에 진짜 어떤표정을 지어야할지
네거티브게이지 차곡차곡쌓입니다
대단하다는말밖엔
어제 · 좋아요 7 · 대댓글
진짜에요? 입밖으로 저런 소리를 냄....???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어제 · 좋아요 1



13. 사례⑬: 이랜드 그룹 계열사 정규직 직원

- 4년제 대졸 공채로 입사
- 최근 회사에서 7시 출근을 빌미로 책 잡히는 것을 알고 대부분의 계열사 직원 출근시간을 8시로 변경함
-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일부 계열사는 7시 출근시간을 고집

- 깜깜한 새벽길에 출근하는 것이 무서울 때가 많음

14. 사례⑭: 이랜드 리테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요청(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이 회사 다니면서 처음으로 일찍 집에 가네요. 이랜드 리테일 인사팀에서 지금 호들갑을 떨며 갑자기 안 지켜주던 근로시간을 지켜주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절대 출퇴근 명부를 적지 않고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기록이 남지 못하게 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비상식적인 행동과 이전의 지급 받지 못했던 시간외수당을 꼭 좀 지급 받을 수 있게 노동부 감사 부탁드립니다.

15. 사례⑮: 이랜드 리테일 직원, 인사팀 출퇴근명부 삭제(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아울러 출퇴근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지문인식 장치나 카드인식을 꼭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근무시간 등 노동법이 지켜져야 하는 근로계약마저 이런 식인 직원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이랜드 리테일에 법이란 걸 깨닫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16. 사례⑯: 이랜드 리테일, 추가수당 미지급, 노조생성=지하주차장 박스 접기=퇴사(당 노동상담 게시판)

1. 사내 직원들에 대한 추가 보수 미지급
종교로 뭉쳐진 이상할 만큼 헌신을 많이 하는 조직입니다. 누구 하나도 반대의 목소리를 안냅니다. 홈에버 이후로 노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 노조생성=지하주차장 박스 접기=퇴사.

17. 사례⑰: 이랜드 리테일 정규직(당 노동상담 게시판 내용 편집)

이유를 알 수 없는 직위 강등('바르지 않은 직장 상사')

- 2016년 5월, 회사측은 '바르지 않은 상사'라는 이유로 100여명의 직원을 팀장 직급에서 담당 직책으로 발령, 어떤 것이 바르지 않은 모습이냐? 라는 문의엔 전혀 답변이 없으며 인사팀 외 그 누구도 이 사유를 알지 못함
- 1년 뒤 재평가 하여 팀장으로 올리든 말든 결정, 주위의 안타깝게 쳐다보는 시선과 협력업체 담당자와의 영업적 미팅 등에서 아주 기죽어가며 비참한 마음

성과급 과소지급

- 성과급은 회사가 어렵다 하여 12월에 50%, 2월에 50% 나눠 지급한다고 함, 일단 '바르지 않은 상사' 발령자 약 100여명은 개개인의 평가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성과연봉제입니다.) 분명한건 몇몇

사람들보다 평가를 잘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200~400만원(총 금액의 50%기준, 12월 25일 받은 절반의 성과급)씩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
- '바르지 않은 상사 대상자'들은 어떤 금액을 받았는가? 성과를 냈어도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함(100만원 내외)
- 성과 연봉제 계약 대상자이고 '바르지 않은 상사'로 직책은 낮춰졌지만 그렇다고 평가 기준이 달라졌다거나 따로 이 사람들만 평가를 모아서 했다거나 한 것이 아닌 기존대로 전체 직원을 놓고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를 받았음

18) 사례⑱: 이랜드그룹 전략기획본부(ESI)인턴 열정페이 문제(당 노동상담 게시판)

저는 이랜드 그룹 전략기획본부(ESI) 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본 인턴십은 매해 여름/겨울에 뽑아 운영하는 것으로 네이버 블로그도 있습니다. 현재 인턴 15기를 운영중으로 7년 이상 된 제도입니다.

저는 인턴기간동안 여러 가지 노동법 위반사례를 발견하였지만 '정규직전환'이라는 희망고문 앞에서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주신 이정미 의원님께서 인턴처우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제공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노동법상 2부를 작성해 하나는 근로자, 하나는 기업이 보관해야 하는데 인턴들에게 인장을 찍은 근로계약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2. 노동시간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정규 근로시간을 7am-10pm 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 없지만 인턴근무시 작성했던 일지나 동기들과의 카톡 기록등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노동법을 위반하였으나 연장근무를 시켜 지하철이 끊겼을때까지 일하고 택시비를 제공하지않았습니다. 또한 거의 매주 토요일 출근해 9-6 일하고 그 후 저녁시간과 일요일에도 집에서 일을하도록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한번도 야근수당이나 연장수당등을 받은적이 없고, 3주 88만원 4주 115만원 받았습니다.(식비포함)

본부장은 우리가 인턴월급은 업계최고다, 성장을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많다 라고 했으나

동기와 장난삼아 실제 일한 시간으로 나누어보니 시급이 3천원대였습니다.

3. 계약 종료 후 업무지시
일부 인턴들은 인턴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일주일 정도 회사에 불려나와서 '공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한채 일을 했습니다.(카톡 증거 유)

4. 내부 고발자 발본색원
3번에서 일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거 노동법 위반아닌가?'하는 말을 인턴끼리만 있을 때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인사팀에서 전체 인턴들에게 전화를 돌려 그말을 한사람이 누군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익명'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후 각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팀원들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 누가 10시 넘어서 퇴근했다는 것을 적었냐 등을 물어보는 익명이 익명이 아닌 조사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불신하게 만들고, 내부 고발자 징계를 통해 내부 비리를 밖에서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처사입니다.(카톡 증거 유)

시급이 6천원대인 지금 실제 일한 시간으로 따졌을 때 3천원대였다는 것은 실제 받아야할 돈의 반정도 수준밖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인턴 한사람당 두달간 세후 48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았어야할 노동량에 240만원 받은셈입니다. 그렇게 한사람당 240씩 떼먹었는데, 한 기수당 인턴이 총 30~50명이고 지금까지 14기수가 이미 운영되었기때문에 평균 40명으로만 계산해도 40×14×240=1,344,000,000 10억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7년간 10억이 넘는 돈, 청년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정규직 희망고문과 성장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로 지금도 이런식으로 인턴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청년을 싸게 쓰고 버리는 존재로 우습게보는 이랜드 죗값받게 해주십시오!

19) 사례⑲: 이랜드 킴스클럽의 임금체불과 부당행위(당 노동상담 게시판)

이랜드 킴스클럽 점장 눈가리기식 근무시간

매일 연장근무에 휴일근로에 강제 연차등록으로 연차는 소멸

2016년 연차돈으로 준다해 놓고 마치 쓰지도 않은 연차 강제로 등록 출퇴근시스템도 없이 본사

인사팀 임의로 막 등록하고 제대로 된 근태시스템도 출퇴근체크도 없이 증거 인멸된 무법천지의 공간 홈에버 사태 이후 변하지 않는 임금체불의 공간.

영업이익 실적평가로 무분별한 점포 인원 줄이기를 일삼는 점장

이랜드파크 사건 터지고 인사팀 에서 부랴부랴 조치하지만 점포 점장들은 직원에게 공유하지 않고 그대로 근무시키고 아직도 결원 인원에 대해 인원 충원이 없고 남아 있는 직원들 속칭 쪼으기로 영업 이익내기 파렴치한 악행의 터전

상대적으로 오픈시간도 빨라서 늘 일찍 출근해야 하는 전문직 직군들은 아직도 회사 내 인원축소로 이런 이랜드파크 사태해도 열정페이로 일함.

법적으로 일12시간 넘는 근무 주60시간 넘는 근무면 처벌대상 아닌가요? 일 연장 시간2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되어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선 근로시간외 근무시키는 몰상식한 점포관리자는 처벌대상 아닌가요?

20) 사례⑳: 이랜드 시스템즈 7시 출근 강요, 강제 QT진행

이랜드시스템즈-7시 출근 강요 및 강제 QT 고발합니다.

이랜드 비정규직은 아니고 정규직이지만 어디에 글을 올려야할지 몰라 여기에 올립니다
국감을 끝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여론에서 부각되고 있어서인지실제 이랜드 근무 정규직들에 대한 부당함들은 상대적으로 가려져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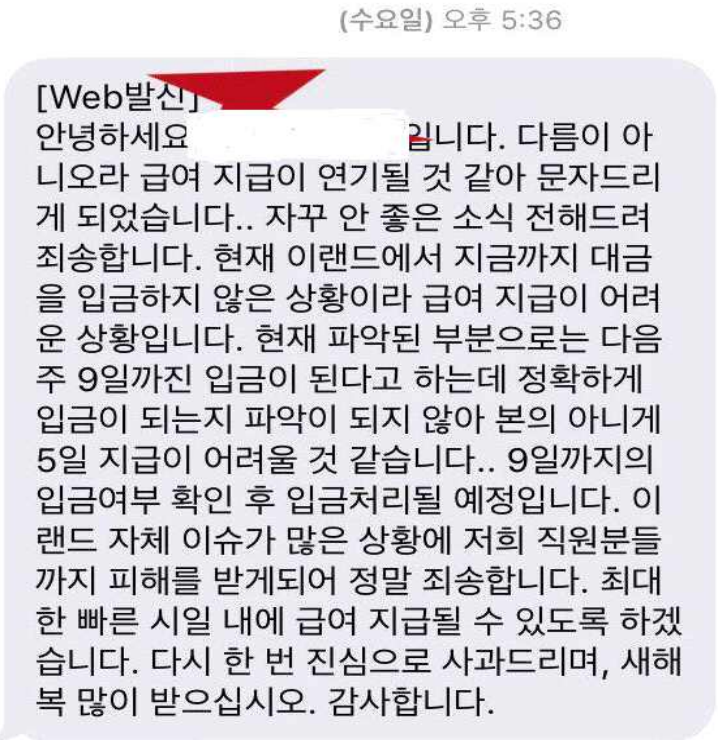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이랜드 시스템즈는 현재 근로계약서상의 출근시간보다 1시간 빠른 7시 출근을 강요하고 7시20분부터 시작되는 성경공부 QT를 종교의 자유는 무시한 채 반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한 감사 진행 다시 요청 드립니다.

이랜드본사 협력업체 대금미결제에 따른 임금체불 발생

1. 사례①: 이랜드 패션사업부 '후아유' 임금체불

- 공채가 아니라 아웃소싱업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밀린다는 문자를 받게 됨
- 이랜드쪽에서 급여, 즉 돈을 입금을 하지 않아서 임금을 못준다고 함, 이런적이 벌써 두 번째
- 이랜드 본사 쪽에서도 미안하단 말만하고 돈을 제때 주지 않고 있음



(사진설명 L 업체 담당자가 알바노동자에게 임금체불 상황을 문자로 보낸 내용)

2. 사례②: 이랜드몰 하청업체 미결제(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이랜드가 2017년 IPO공개를 통해 상장을 하고 그 조건들 중 한개의 걸림돌이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의 부진입니다. 그 때문인지 2016년 입금을 계속 지연시키고, 계속적으로 업무를 강요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인들의 회사만의 이득을 위해 상생하지 않고 지급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좀 조사해서 공론화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사해보셔도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랜드 그룹사의 경영 꼼수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

다.

3) 사례③: 이랜드월드 하청업체 미지급(정의당 노동상담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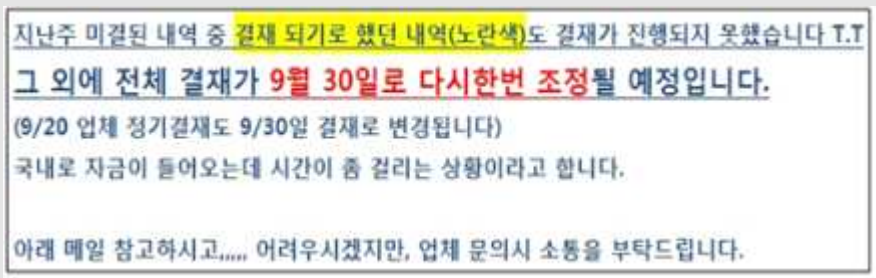
이랜드 월드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랜드 월드(패션)는 알바비 뿐만이 아닌,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파크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랜드 월드 (패션)도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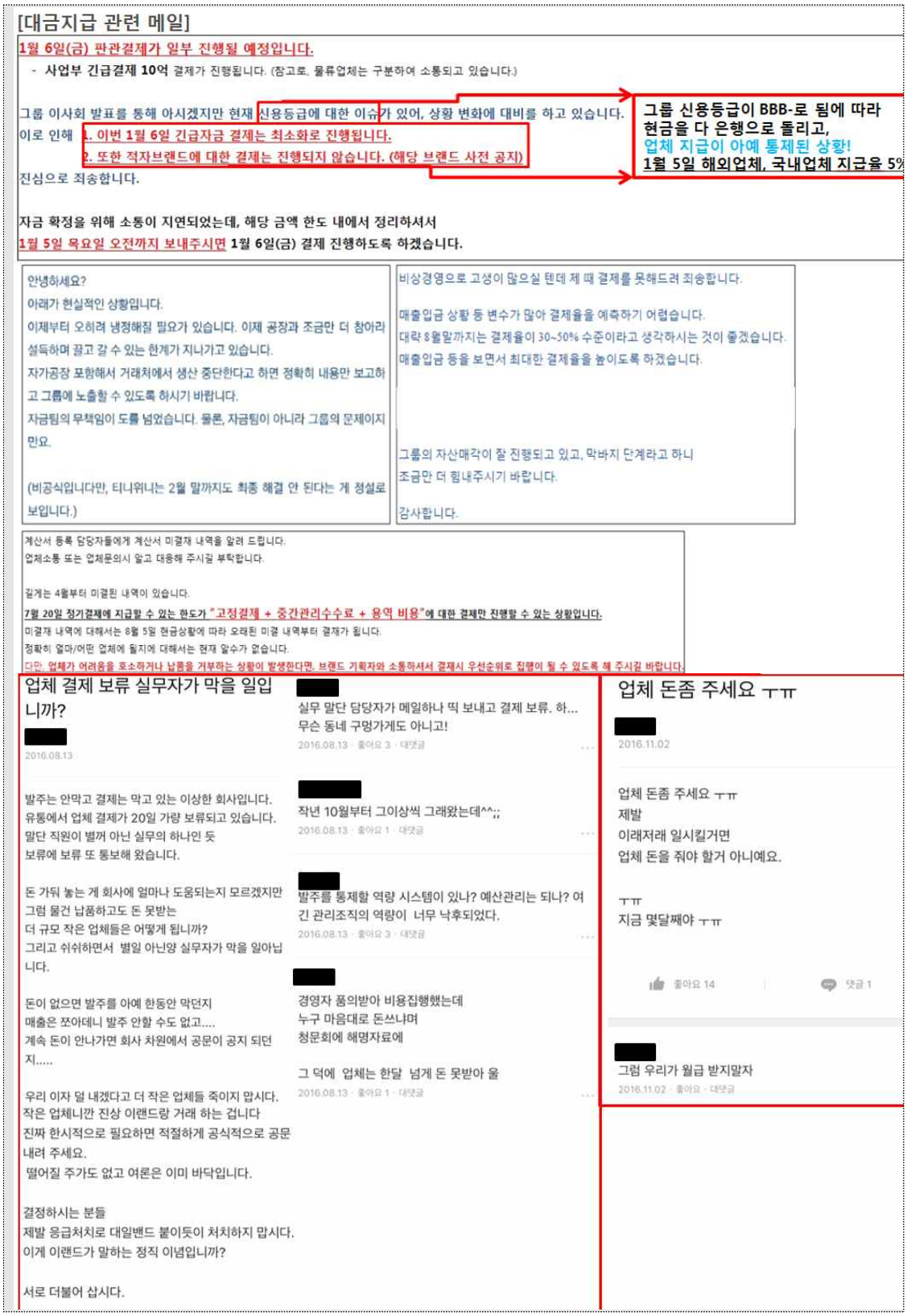
현재 업체에 돈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1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결제율 20~30% 에서 매달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약속된 날짜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한 행태"입니다. 따라서 본사 직원들은 하도급법 교육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으며, 윤리 경영 관련하여서도 이를 계속 접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직을 외치는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 참을 수가 없어 이곳에 고발합니다..

현재 업체에서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해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추석에도 돈이 지급되지 못해 업체에서는 행복한 명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재무팀, 자금팀, 그리고 그 위에 경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결된 내역 중 결재 되기로 했던 내역(노란색)도 결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T.T
그 외에 전체 결재가 9월 30일로 다시한번 조정될 예정입니다.
(9/20 업체 정기결재도 9/30일 결재로 변경됩니다)
국내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래 메일 참고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업체 문의시 소통을 부탁드립니다.


[대금지급 관련 메일]
1월 6일(금) 판관결제가 일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업부 긴급결제 10억 결제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물류업체는 구분하여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룹 이사회 발표를 통해 아시겠지만 현재 신용등급에 대한 이슈가 있어, 상황 변화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 이번 1월 6일 긴급자금 결제는 최소화로 진행됩니다.
2. 또한 적자브랜드에 대한 결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해당 브랜드 사전 공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룹 신용등급이 BBB-로 됨에 따라
현금을 다 은행으로 돌리고,
업체 지급이 아예 통제된 상황!
1월 5일 해외업체, 국내업체 지급율 5%
자금 확정을 위해 소통이 지연되었는데,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정리하셔서
1월 5일 목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1월 6일(금) 결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가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오히려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장과 조금만 더 참아라 설득하며 끌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가공장 포함해서 거래처에서 생산 중단한다고 하면 정확히 내용만 보고하고 그룹에 노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팀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물론, 자금팀이 아니라 그룹의 문제이지만요.
(비공식입니다만, 티니위니는 2월 말까지도 최종 해결 안 된다는 게 정설로 보입니다.)
비상경영으로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 때 결제를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매출입금 상황 등 변수가 많아 결제율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8월말까지는 결제율이 30~50%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출입금 등을 보면서 최대한 결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의 자산매각이 잘 진행되고 있고, 막바지 단계라고 하니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산서 등록 담당자들에게 계산서 미결재 내역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소통 또는 업체문의시 알고 대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갈계는 4월부터 미결된 내역이 있습니다.
7월 20일 정기결제에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고정결제 + 중간관리수수료 + 용역 비용"에 대한 결제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결재 내역에 대해서는 8월 5일 현금상황에 따라 오래된 미결 내역부터 결재가 됩니다.
정확히 얼마/어떤 업체에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수가 없습니다.
다만, 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납품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브랜드 기획자와 소통하셔서 결제시 우선순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 결제 보류 실무자가 막을 일입니까?
[redacted]
2016.08.13
발주는 안막고 결제는 막고 있는 이상한 회사입니다.
유통에서 업체 결제가 20일 가량 보류되고 있습니다.
말단 직원이 별꺼 아닌 실무의 하나인 듯
보류에 보류 또 통보해 왔습니다.
돈 가둬 놓는 게 회사에 얼마나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물건 납품하고도 돈 못받는
더 규모 작은 업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쉬쉬하면서 별일 아닌양 실무자가 막을 일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발주를 아예 한동안 막던지
매출은 쪼아데니 발주 안할 수도 없고....
계속 돈이 안나가면 회사 차원에서 공문이 공지 되던지.....
우리 이자 덜 내겠다고 더 작은 업체들 죽이지 맙시다.
작은 업체니깐 진상 이랜드랑 거래 하는 겁니다
진짜 한시적으로 필요하면 적절하게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 주세요.
떨어질 주가도 없고 여론은 이미 바닥입니다.
결정하시는 분들
제발 응급처치로 대일밴드 붙이듯이 처치하지 맙시다.
이게 이랜드가 말하는 정직 이념입니까?
서로 더불어 삽시다.
[redacted]
실무 말단 담당자가 메일하나 띡 보내고 결제 보류. 하...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2016.08.13 · 좋아요 3 · 대댓글
[redacted]
작년 10월부터 그이상씩 그래왔는데^^;;
2016.08.13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발주를 통제할 역량 시스템이 있나? 예산관리는 되나? 여긴 관리조직의 역량이 너무 낙후되었다.
2016.08.13 · 좋아요 3 · 대댓글
[redacted]
경영자 품의받아 비용집행했는데
누구 마음대로 돈쓰냐며
청문회에 해명자료에
그 덕에 업체는 한달 넘게 돈 못받아 울
2016.08.13 · 좋아요 1 · 대댓글
업체 돈좀 주세요 ㅜㅠ
[redacted]
2016.11.02
업체 돈좀 주세요 ㅜㅠ
제발
이래저래 일시킬거면
업체 돈을 줘야 할거 아니예요.
ㅜㅠ
지금 몇달째야 ㅜㅠ
좋아요 14
댓글 1
[redacted]
그럼 우리가 월급 받지말자
2016.11.02 · 좋아요 · 대댓글

[블라인드 게시글 및 댓글]

하청업체 대금 미지불

[redacted]
2016.11.10

이해하기 어렵네요. 보통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하면 대금의 50%만 미지급을 받아도 그 사업이 휘청이거나 사장이 절대로 가만있지 않는 법인데 고작해야 10%도 안되는 돈을 2주일에 한번씩 주면서 심한건 5개월이 넘어가는 동안 30%도 지급이 안된...말하자면 내가 공장하는데 물건납품하고 그거 만드는데 10억 썼고 계약금액이 11억이고 이번 건수로 1억 챙겨야하는데 납품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3억도 못받았고 돈을 버는건 고사하고 내가 투자한돈의 삼분지일도 회수를 못한 상황에서 다음시즌 오더를 진행하고..??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단 한달이라도 계속되는것도 신기해 미칠 지경인데 범법자로 이랜드 고발하는 업체다 단 한군데도 없다구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다들 건너건너 가족 친구들인 빅 커뮤니티라서 그냥 참고 가는겁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바로 지급돼던 돈이 월드 자체의 매출은 작년과올해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뉴발 100억 꺾인거 아동이나 SPA에서 커버해서 거의 똔똔이죠 현재까지) 올해 유난히 이런건 작년도 제작년도 우린 현금이 많은 회사라 은행 이자로 줄돈 다 주고 잘먹고 잘살아왔는데 이런 방식 안되겠다 사업채가 아무리 모체의 역할을 해고 스스로 못벌어먹으면 의미없다 이런 생각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용 하면서 더 이상 그룹이 보유한 현금의 힘을 끌어다 쓸 수 없기에 이런건가요? 그런거면 암묵적으로 그룹에서 패션을 버렸다고 봐도 무방한거 아닙니까...설마 대금 미지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위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구요....비즈니스가 유지되는게, 그 많은 업자들중에 고발하는 넘이 없는게 믿기지가 않네요 이랜드가 대부분의 해외 제조업자들과 전부 하나의 빅 커뮤니티 안에 묶인 존재들이 아닌 한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redacted]
하청업체도 문제임 .... 돈안주면 일 안해야한다 ..... 직원들도 문제임 ... 야근비 안주면 단체로 야근 안해야한다 .... 그래도 해달란대로 일 해주자나 ㅋㅋㅋ 누가누구사정을 봐주는건지 ....회사는 업체든 직원이든 신경도 안쓰는데 ....
2016.11.10 · 좋아요 3 · 대댓글

[redacted]
발주를 안받아주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2016.11.1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이미 신규업체들이 거래안하겠다 하고 있어요 해결안되면 조만간 오래된 업체들도 떠날듯...
2016.11.10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브랜드 입금의무액 받는건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나요 실무자들에게 그런것부터 공유해주셔야하지 않습니까?
2016.11.10 · 좋아요 2 · 대댓글

[redacted]
예전에는 그랬죠 입금의무액 받아서 월급이랑 업체결제나갔어도 그땐 문제없이 다 나갔지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도 쪼이니 하다못해 그룹 현금을 어디다 쓰고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다 잘 결제되고 있던게 매장 입금의무액도 잘 들어오는데 왜 우리 결제는 이렇게 계속 심각한지
2016.11.11

[redacted]
양아치들
2016.11.10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대출 만기가 가까워오니까 그거 갚는데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매출이나 수익 같은 사업규모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이제 대출금은 갚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신용평가 등급이 계속 하락하면서 실제 이자율도 점점 높아지는 거고, 작년하고 똑같은 수익이 발생했어도 내야할 이자가 비약적으

업체 대금 결제 지연

[redacted]
2016.09.28

너무 합니다 ㅠㅠ 전화 못해요 더이상ㅠㅠ

좋아요 6 | 댓글 3

[redacted]
대금결제 시즌2
2016.09.28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난센스
2016.09.29 · 좋아요 · 대댓글

업체대금 미납도 기사떠야 외양간고칠까.

[redacted]
어제

업체대금미납도 기사뜨고 불매운동에 기름부을것같

좋아요 17 | 댓글 25

[redacted]
만약 우리 직원분들 급여를 한달 유예하고 그 돈으로라도 업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거라면 받아들이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에도 위와 같이 글 올리실 수 있으세요?

협력업체 대금지연.. 18...×같네
[redacted]
2016.08.31
10조짜리회사가
니네돈 나가는건 아쉽지?
그러고도 교회에 바치는돈은 안아깝지?
영세기업 망하고
사장님들 곡소리는 안들리지?
니네들이 그러고도
미션컨퍼니 지껄이냐?
그냥 차라리 주둥이 닥치고라도 있으면
덜 가식적이다..
하루전에 달랑 사원주임시켜서
저나한통 넣으라고?
니네돈을 그렇게 했으면
너흰 어찌했겠나?
이런 천하의 양아치 새끼들아!!
이랜드
이랜더라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더럽고 치졸하고 가식과 위선 밖에 없는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예이 퉤하면서 뒤쳐나갈수가 없어서 더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2016.08.31 · 좋아요 8 · 대댓글
Jskjs19
이번달 직원급여지급 비율줄이고서라도 업체에 일부나갔어야함
급여지급 분할하면 직원들 난리났겠지만 사전에 의사소통하고 논의하여 설득했어야함
2016.08.31 · 좋아요 2 · 대댓글
우린 가루다
하루전이요? 저흰 업체전화받기전까지 몰랐습니다. 욕나옵니다.
2016.08.31 · 좋아요 4 · 대댓글
돼지비지
이러니 비도덕적 경영하는 회사라고 욕처먹지 진짜 양아
업체 결제 좀 해줍시다
[redacted]
2016.11.18
최소한 룰이라도 있어야 업체에 사정을 하지요
무작정 기다렸다가 받으라고 하는 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당신들 월급은 언제 줄 지 모르니 일단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겁니까
좋아요 10
댓글 10
[redacted]
또 밀리나요?? ㅜㅜ
2016.11.18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다음주까지 결제 없음
2016.11.18
[redacted]
심하다진짜..
2016.11.18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이 정도면 골동품 팔고 사제 출현 좀 합시다
2016.11.18 · 좋아요 4 · 대댓글
[redacted]
휴ㅜ
2016.11.18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난 왜 마치 사채업자한테 돈빌린 사람인양 사과하고 마음조아리고 연락 독촉을 받아야하는가
2016.11.18 · 좋아요 3 · 대댓글
[redacted]
사주는 내가 이럴려고 회사 시작했나 생각해야함
[redacted]
거래업체대금 밀리는건 정말부끄럽다 일을하지말지 차라리 : 하고 시키고 밀리나!! 그사람들도 당장급할수도있는데 :
2016.11.19 · 좋아요 1 · 대댓글
[redacted]
중간관리자들이 눈치보고 있어요. . .
그들도 비겁자입니다!!!!
2016.11.19 · 좋아요 · 대댓글
[redacted]
제발 돈좀 줘요..선입금 하라더니 그돈은 대체 다 어디가요.. 결제가 안되니까 상품을 안주고..안주니까 매출이 안나오죠..
2016.11.22 · 좋아요 · 대댓글

이랜드그룹 각종 위법행위 및 부당행위 정리(표)

번호	사안	주요내용	관련 법령
1	**연차휴가(수당)미부여·미지급**	근속 1년 미만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 시 주도록 하고 있는 연차휴가 미부여 및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2	**조기퇴근, 휴업수당 미지급**	기간제법상 연장근로수당 가산금 회피 위해 실근로시간보다 1시간 더 많이 계약해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시간 보다 일찍 '조퇴'처리하고 퇴근시킴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3	**10분 스탠바이, 15분 꺾기**	출근은 10분 일찍해 대기, 출퇴근 기록은 15분 단위로 기록,	근로기준법
4	**휴게시간 미보장**	4시간당 30분씩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휴게시간 미보장	근로기준법
5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주3일 근로하게 해놓고 주4일로 계약해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6	**포괄임금제 악용**	정규직 월급제노동자의 경우 포괄임금제 활용을 통한 고정 연장근로수당(20시간)외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미지급→장시간노동	근로기준법
7	**근로계약 위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무 장소 등에 대한 변경 시 노동자 동의 없이 진행	근로기준법
8	**퇴직금 미지급 위한 해고**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9	**퇴근처리 후 라커청소**	뒷근무자 없을 경우 퇴근처리를 한 후 라커룸 청소하고 청소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10	**쪼개기 계약**	2년 이상 근로하였을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10개월 근속 후 2개월 간 퇴직하였다가 이후 다시 입사	기간제법
11	**생리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상 1달에 1회 여성노동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생리휴가 미부여	근로기준법
12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미산정**	1달 1회 1시간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근무외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13	**임원진 방문시 무급근로**	임원진 방문이 예정된 경우 매장 청소를 새벽까지 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기준법
14	**재해시 산재 미처리**	작업중 재해를 입었음에도 산업재해 신고와 인정절차 따르지 않고, 매장 내 자체 처리하거나 노동자 개인부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사회보험료 갈취**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함에	근로기준법,

		도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 있지 않고, 요청하면 해당금액 환불조치	고용보험징수통법 등
16	**유니폼 미지급**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유니폼이 있음에도 그중 일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준비하도록 함	부당행위
17	**산업체 위탁교육생의 퇴교 문제**	산업체 대 위탁교육 전문대학 '이랜드반'를 통해 입학·취업한 경우, 퇴직을 요청할 경우 사실상 강제 퇴교 조치하도록 함	부당행위
18	**인건비 '허들'**	원가율과 인건비율에 대해 본사에서 지점에 지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a, b, c등급화해 정규직원 임금차등 지급	부당행위
19	**지문 수집**	출퇴근 시간 기록기 등록 위해 지문 수집하고 있음에도 동의 절차 없고, 파기 계획 등 안 밝혀	개인정보보호법
20	**CCTV 감시**	CCTV를 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업무를 지시함	개인정보보호법
21	**채용공고문에 나이 제한 기재**	일부 매장의 경우 해당 업무에 나이 제한을 둔 공고문을 기재함	고령자 고용촉진 등에 대한 법률
22	**채용공고문 시급과 근로계약서상 다른 시급 명시·지급**	채용공고문의 시급(7,24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액수를 넣어 임금을 뻥튀기시키 효과를 보임, 그러나 실제 계산한 시급은 6,033원이지만 근로계약서와 실제 지급받은 시급은 6,030원임	채용절차 공정화를 위한 법률
23	**지문등록 출퇴근 시간 정보공개 거부**	근로기준법 제39조상의 '사용증명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경력증명서로 축소 해석하면서 제출 거부	근로기준법
24	**특정종교 강요**	업무시간내·외QT, 사측에서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실제 부서별로 참석 공지 및 매일 참석자 현황 체크, 인사고과에 반영해 기도시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함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